

“마지막 기회”...그 간절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KIA 고종욱이 지난 1일 열린 SSG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맞선 7회말 결승타를 때려낸 후 기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고종욱, ‘잇몸야구’ 중심에서 팀 반등 견인

오랜 기다림의 끝, 꾸준함으로 이뤄진 새로운 시작 “매 순간이 소중”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각인...“1군에서 오랫동안 뛰고 싶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타선의 출발점에서 팀이 이끄는 한 베테랑이 있다.

외야수 고종욱(36)이 그 주인공이다. 시즌 초반부터 핵심 전력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가운데, 그는 최근 KIA의 ‘잇몸야구’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초 올 시즌 처음 1군에 등록된 이후, 선두 타자로서 공격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가 합류한 6월부터 반등 흐름이 본격화됐고, KIA는 7위에 머물던 순위를 어느새 상위권까지 끌어올렸다.

올 시즌 19경기에 출전한 그는 타율 0.429(42타수 18안타), 장타율 0.619, OPS 1.076의 빼어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최근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7월 5경기 중 3차례 멀티히트를 쳤다.

고종욱은 숫자 이상의 역할로, 타선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고 있다.

“그냥 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집중하려고 해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콜업 소식을 들었을 당시를 떠올리며 고종욱은 담담히 말했다.

그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팀에는 성장 중인 젊은 외야 자원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을 먼저 보내며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다.

“솔직히 2군에서 열심히 준비는 했었지만, 기회가 올지는 몰랐어요. 어린 선수들이 먼저 올라갔고, 저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준비만 계속했죠. 올해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와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부담감이나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루틴에 집중했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플레이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 그렇게만 마음을 먹었어요.”

현재 그는 타석에서의 감각도 꾸준히 유지 중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몸 상태 관리에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유지하는 데 신경

을 많이 쓰고 있어요.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팀 내에서 고종욱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배다. 하지만 후배들을 이끈다거나,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일부러 자처하진 않는다.

그는 지금 팀의 상승세를 받기며,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후배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다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시즌 끝까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팀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말 좋아요. 누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2011년 넥센에서 데뷔한 고종욱은 이후 SK(현 SSG)를 거쳐 2022년 KIA에 합류했다. 2023년까지는 주전 좌타자로 활약했지만, 지난해부터 주로 2군에 머물렀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다. 꾸준히 팀에 기여하며 끝까지 그라운드를 지키는 것.

“제 목표는 지금처럼 1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시합나가고, 경기를 치르고, 그렇게 시즌을 끝까지 가는 거죠. 팀도 지금 순위 경쟁 중이니까, 같이 좀 더 올라가야죠.”

마지막으로 팬들을 향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팬들이 많은 관심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뛰고, 더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그리고 다시 호랑이 타선의 선두에 선 고종욱은 지금,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추홍철 기자

“동아시아컵은 월드컵 대비 수비진 평가 기회”

홍명보호, 오늘 오후 8시 중국과 1차전

“이번 대회는 월드컵을 앞두고 수비수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좋은 기회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의 주요 과제로 ‘수비 기대주 점검’을 꼽았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국내 리그들을 중심으로 출전 명단을 짰다.

홍명보호의 경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과 비교해 보면, 수비진의 변화가 특히 심하다.

수비수로 분류되는 10명의 선수 중 4명은 아예 이번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들 수비진이 얼마나 빠르게 대표팀 수비 전술에 녹아드느냐는 대회 우승의 열쇠이면서 월드컵 본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홍 감독이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이기도 하다.

홍 감독은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표팀 수비진은 내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로 꾸렸다. 이번 대회는 물론이고, 이들이 1년 뒤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우리 대표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이어 “(소집 기간이 짧아) 쉬운 경



6일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공식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감독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대안 주르베지 감독과 장위민, 한국 홍명보 감독과 박진섭, 일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 나가토모 유토, 홍콩 애슬리 웨스트우드 감독과 리카호. /연합뉴스

기가 되진 않겠지만,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22년 일본에서 열린 직전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당초 소집 명단에 들었던 일부 선수들이 해외 이적 등 문제로 낙마하면서 모리야스 감독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우승 목표엔 변함이 없다.

모리야스 감독은 “우승을 위해 싸우겠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쌓은 경기력, 경험이 ‘레벨업’으로 연결돼 대표팀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로 중국 대표

팀 감독 대행에 맡겨진 중국 20세 이하(U-20) 대표팀 대안 주르베지 감독은 “최대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게 유일한 목표”라면서 “좋은 팀들을 상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최약체 홍콩을 지휘하는 애슬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겠다. 한국(29위), 일본(15위), 중국(94위)은 좋은 팀이고 FIFA 랭킹도 우리(153위)보다 훨씬 높다”면서 “우린 잃을 게 없다.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7일 오후 8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전남과학대 변준현·양채운 대한볼링협회장배 동반 우승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제2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대학부 남녀 개인전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과학대 변준현(2년)과 양채운(1년)이 지난 4일 전주 천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대학부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변준현은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함께 1천438점(평균 238.7점)을 기록하며 2위 전형우(경남대·합계 1천411점, 평균 235.2점), 3위 김영진(강원도립대·합계 1천405점, 평균 234.2)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채운(1년)은 여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함께 1천388점(평균 233점)으로 2위 김지은(경북대·합계 1천340점, 평균 223.3점), 3위 지영(가천대·합계 1천320점, 평균 220점)을 제치고 영광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박승권 전남과학대 볼링팀 지도교수는 “이



대학부 남녀 개인전 동반우승을 차지한 변준현(왼쪽)과 양채운 <전남도체육회 제공>

변 남녀 동반 전국 제패는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학교측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남을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목포시 i-LEAGUE 개막

4개 부문 27개 팀 참가...리그전 열전

전남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목포시 i-LEAGUE가 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협찬 서막을 열었다.

2025 목포시 i-LEAGUE는 전남 지역 학교 및 클럽팀이 참가하며, U-8 부문 5팀, U-10 부문 5팀, U-15 부문 12팀, U-18 부문 5팀 등 4개 부문에서 27개팀이 참가해 열린 경기를 펼친다.

오는 12월까지 총 8회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 향상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여름축구축제, 아이리그 챔피언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곁들여진다.

i-LEAGUE는 ‘무한한 상상과 감동의 리그’



2025 목포시 i-LEAGUE에 출전한 목포 인덕중과 목포 문태중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infinite, imagine, impress)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13년부터 목포시체육회가 꾸준히 운영해오며 지역 학교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에 기여해 왔다.

이번 리그는 목포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3천800만원을 확보했고, 시

비 2천400만원을 더해 총 5천400여만원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앞으로도 i-LEAGUE 등 전남 유·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문정클럽’·‘썬클럽’ 남녀부 우승

광주시배구협회장배 생활체육배구대회 ‘성료’...조선대·광주여대 장학금

제28회 광주시배구협회장배 생활체육배구대회가 지난 5일 북구종합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대회에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배구동호인 클럽 18개팀(남 9·여 9)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예선리그를 거쳐 6강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된 경기에서 남자는 문정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문정클럽은 결승에서 드리머스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여자부는 썬클럽이 결승에서 워너브이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이날 개최식에서는 전직 배구 지도자와 선수, 대학 교수, 학교장 출신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배구협회자문위원들이 2025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생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선대와 광주여대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훈훈함을 안겼다. /박희중 기자